아시아리뷰 제15권 제3호(통권 35호), 2025: 321~354 https://doi.org/10.24987/SNUACAR.2025.12.15.3.321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베트남의 헤징 전략*

이수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트럼프 2기를 맞은 베트남이 헤징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베트남의 헤징을 전망하는 데 있다. 헤징에 관한 기존 연구는 헤징 전략의 결정 요인 또는 헤징 행태에 집중된 반면, 헤징 전략의 근간이 되는 헤징 국가의 지정학적 사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헤징 국가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헤징 전략의 실행에 관한 정책결정자의 지침을 관찰하는 연구도 드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한 중간국 베트남이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헤징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을 구명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공산당의 담론에서 나타난 비판지정학적 사고를 포착하여, 헤징 전략의 실행에 관한 당의 지침을 밝힌다. 그리고 분석적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헤징 개념을 안보 분야에 한정해 재정의하고, 베트남이 공통의 안보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와 제휴하는 내용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베트남의 헤징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제휴 수준이 상향될 가능성과 기제를 보인다. 그런 한편 베트남은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인프라 연결성과 공급망 연결성 측면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2030년경 다극화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면서, 중국과 정치적 · 경제적 제휴를 꾀하고 있다.

주제어 헤징 전략, 비판 지정학, 중간국, 베트남공산당, 제휴

I. 서론

헤징은 경쟁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balancing)과 편승의 중간지점을 추구하는 대외전략을 말한다. 상술하면, 헤징은 보다 위협적인 강대국을 관리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으로 관여하는 위험관리 전략으로 정의된다(Marston, 2024: 32-33). 학계는 지난 십수 년간 상대적 약소국의 생존전략으로서 헤징 전략을 연구

* 이 글의 초안은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2025. 6. 26.)에 수록되었습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조원득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virtu@kida.re.kr

해 왔다. 그중에서도 아세안의 헤징은 학계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으며, 베트남은 아세안의 사례 중 하나로 다뤄졌다. 국방 분야의 '4불(4不) 원칙'과 외교관계 다변화라는 베트남의 독트린은 헤징 전략으로 구현된다(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Vietnam, 2019: 23).[1]

하지만 기존 연구는 (신)현실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강대국 중심의 세력 구도·국가의 국력·국가의 위협인식과 같은 설명변수와 헤징 전략 선택 간의 관계 또는 헤징 국가의 헤징 행태에 집중되었다(신범식 외, 2022: 27; Marston, 2024: 30). 반면 헤징 전략의 근간이 되는 헤징 국가의 '지정학적 사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 헤징 전략은 해당 국가의 지리적 조건(위치, 자원, 국력 등)에 대한 인식, 헤징 국가의 지정학적 가치 평가에 대한 해당 국가와 이해관련국의 간주간적인 평가에서 출발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헤징 국가의 지정학적 사고를 고찰하지 않고, 헤징 '행위'를 설명 대상으로 하여 함의를 논하는 것은 설명력과 예측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2] 헤징 국가의 지정학적 사고는 기존의 연구대상인 헤징 국가의 동기와 의도, 행태를 바꿀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헤징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접근으로서의 지정학적 사고는 대외전략의 성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점에서 2023년 출간된 『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라는 기획연구물은 '중간국(middle-ground state)'의 지정학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의미 있는 동향이다. 여기서 중간국이란 경쟁하는 두 강대국 사이, 또는 경쟁하는 두 강대국의 세력권이 중첩되는 단층대에 위치한 국가를 말한다(신범식 외, 2022: 22). 이 책에서 베트남 사례의 경우, '과거'와 '국내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중간국 외교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다루었다.

이 글은 중간국의 헤징에 관한 관심을 계승하여 베트남의 현재, 그리고 국제정

1 4불 원칙은 군사동맹 비참여, 특정국에 반하는 연합 비참여, 영토 내 외국군사기지 및 외국군 주둔 불허, 무력사용 및 무력사용 위협 반대이다.

2 예컨대, 베트남의 헤징 전략을 다룬 국내외 연구는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리적 조건 때문에 신중하게 위험관리를 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지리적 조건을 구조적 제약으로 전제하여 베트남의 헤징을 논하였고,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는 베트남의 능동적인 지정학적 사고와 헤징 방법에 주목하지 않았다.

치적 함의를 띤 베트남의 지정학적 사고에 초점을 둔다. 글의 목적은 트럼프 2기를 맞은 베트남의 헤징 전략을 설명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분석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 사이에 낀 중간국 베트남이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지 논증한다. 다음으로, 헤징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한 '국방·안보' 영역에서, 베트남이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어떻게 헤징 전략을 구사하는지 구명한다. 헤징 전략의 미시적 분석을 위해, 베트남이 어떠한 강대국과 제휴하여, 어떠한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어떻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살펴본다.

베트남의 담론에 따르면,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은 고전 지정학에서 논하는 적응의 의미를 넘어선다.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려는 능동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상대국의 셈법을 고려하여, 지정학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지리적 위치, 종합국력, 외교정책)를 조작하고, 국력발전과 국제협력의 시너지를 꾀하는 책략은 베트남의 헤징 전략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이다. 이처럼 지리결정론을 거부하는 베트남의 헤징 전략은 자연스럽게 강대국 중심적인 지정학을 비판하는 비판지정학의 관점을 담고 있으며, 대항지정학(counter-geopolitics)의 성격을 띤다(Ó Tuathail 1999: 109; 김태환 외, 2019: 39-40).[3] 기실 오늘날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중추국(pivotal middle state)'의 지위를 갖고 있다. 영국의 지리학자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개념에 기원을 둔 중추국은 강대국 분쟁의 중앙에 위치하며, 제한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신범식 외, 2022: 20).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그간 강

3 강대국 중심적인 전통 지정학의 접근방법과 가정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로 1990년대에 비판지정학이 태동하였다. 비판지정학은 강대국의 권력정치(power politik)와 일체화된 지정학 담론을 해체하여, 주체(상대적 약소국)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현상을 기술(geo-graphing)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비판지정학은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질서를 인정한다. 동시에 정치적인 실천을 통해서 고전 지정학의 영향력을 희석함으로써, 대안적인 국제질서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한다. 대항지정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타적이지 않은 포용적인 정체성으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공간과 힘(관계의 힘, 협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대항지정학 담론을 입증하는 예로는 2021년 제13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는 연구물로서 『공산잡지(*Tạp chí Cộng sản*)』에 소개된 Lê Đình Tĩnh의 글('새로운 맥락에서 "지전략" 개념에 접근하기: 2030년까지 베트남의 기회와 과제')을 참조.

대국 중심의 지정학에서 관점을 전환하여 상대적 약소국을 설명대상으로 둠으로써, 우리의 대외전략을 개발하는 데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중추국의 지위를 갖는 베트남의 대항지정학은 미국과 중국의 지역패권 전략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인-태 지역의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정혜영, 2019: 231).

상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비판지정학 연구기법을 반영하여, 1차 자료로는 현실지정학 문서인 베트남공산당 정치국 결의문, 베트남공산당 이론지인 『공산잡지(*Tạp chí Cộng sản*)』와 『국방저널(*Tạp chí Quốc phòng toàn dân*)』 등을 분석한다. 특히 『공산잡지』는 4개 국가권력(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 당 중앙이론위원장 등 정치국 위원의 기고를 게재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2차 자료로는 공식지정학 문서인 대학, 씽크탱크 등 학술기관의 연구물을 활용한다. AI 기반 자동번역 덕분에 연구목적에 맞는 원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4]

정리하면, 이 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헤징 행태를 묘사적으로 설명하거나 헤징 전략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글은 베트남이라는 블랙박스를 열어서, 베트남공산당이 헤징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을 밝힌다. 둘째, 베트남의 헤징 전략을 비판지정학에서 말하는, 지리지식을 이용한 담론의 실천(discourse practice)으로 이해하고,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베트남공산당의 담론을 파악한다. 특히 베트남공산당 이론지와 같은 현실지정학 문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자료이다. 셋째, 헤징의 재정의에 기반하여 국방·안보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베트남의 헤징이 대중국 균형(대미 제휴)으로 미세 조정될 가능성과 기제를 전망한다.

글은 다음 순서로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헤징 전략의 동인인 베트남의 지정학적 인식을 다룬다. 베트남이 인식하는, 자국의 지전략적 가치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이 지정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영역에서 어떻게 헤징 전략을 구사하는지 설명한다. 먼저 헤징 개념을 국방·안보 영역에 한정하여 정의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그리

4 베트남어 번역에 사용한 번역사이트는 DeepL이다.

고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한 베트남의 헤징 전략이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어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헤징 개념의 재정의에 비추어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또 다른 중간국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와 위상: 중간국과 중추국

중간국 개념은 림랜드(Rimland)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그 국가의 잠재적 갈등을 결정한다'는 니콜라스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의 주장처럼, 유라시아 대륙의 연안지역인 림랜드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세계전쟁은 항상 림랜드 국가(연합)와 해양 강대국 대 림랜드 국가(연합)와 대륙 강대국의 대립이었다. 여기서 전쟁의 목적은 림랜드 연안을 통제하여 세계패권의 지름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Spykman, 2019: 88, 93). 그리고 이 림랜드에 위치한 베트남의 역사는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하지만 현대 베트남은 고전지정학의 명제인 지리결정론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비판지정학의 관점에 따르면, 지정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국제정치를 '공간화'하고, 그 공간을 담론으로 만들어 담론을 '실천'하는 것이다(Ó Tuathail·Agnew, 1992: 192-194; 지상현·Flint, 2009: 173-174). 베트남공산당과 관변 연구기관의 담론에서는 베트남의 지전략적 위치와 지정학적 가치에 관한 지식, 국제정치 속의 베트남의 입지 공간, 인민전쟁의 사상과 지리를 활용한 전술 등과 같이, 지리 '공간'의 이해와 활용을 강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Lê, 2023; Government News, 2024).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베트남은 투쟁하였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국가 정체성은 현대 베트남의 세계관인 '협력과 투쟁'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외교의 근간인 베트남공산당 정치국 결의 13/NQ-TW(1988년)에서 공표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대외관계를 '평화공존의 투쟁과 협력'으로 다룬다. 협력과 투쟁의 세계관은 친구와 적대세력을 이분화하지 않는다(Nguyễn, 2022). 이처럼 베트남의 역사, 지리, 정체성, 국가의 위상에 바탕을 둔 지정학적 문화는

비판지정학의 담론을 형성하는 근저이다(Ó Tuathail·Agnew, 1992: 192-193; 지상현 and Flint, 2009: 178). 협력과 투쟁의 세계관은 결과적으로 물리적 국경을 넘어, 베트남의 유동적인 입지적 공간을 만든다. 동시에 협력과 투쟁의 세계관은 헤징의 기저 철학으로 풀이된다. 헤징 전략이 '순응과 저항'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신욱희, 2010).

그렇다면 베트남이 인식하는 자국의 객관적인 지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베트남의 현실지정학과 공식지정학 문서는 모두 공통적인 담론을 논하고 있는데, 2021년 6월 국회 인준으로 개정된 '해양법'이 그것이다. 기존의 해양법은 2012년에 제정(18/2012/QH13호)되었는데, 법무부는 제1장과 제2장에서 '동해의 위치와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대한 중요성,' '베트남에 있어서 동해의 위치와 중요성'을 각각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정치서적(『베트남 청소년을 위한 바다와 섬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답변』)을 발췌한 내용이다. 이른바 지정학적 국가체계(역사, 지리, 정체성, 국가의 위상 등)를 통찰하여 지정학적 전통과 문화를 논하고, 이를 통해 지배적인 지정학적 담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위 있는 담론은 다시 정치인의 연설, 정부 독트린, 외교적·법적 조치, 여론 등에 사용된다(지상현·Flint, 2009: 178).

이 해양법에 따르면, 첫째, 베트남은 아시아의 소대륙(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을 잇는 다리이다. 남중국해(베트남 명칭 동해)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이어지고, 동중국해를 거쳐 러시아 극동지역과도 연결된다. 또한 메콩강 지역을 통해 방글라데시를 거쳐 남아시아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연해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주지하듯 남중국해 항로는 세계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다. 동시에 남중국해는 자원(생물, 광물, 에너지 등)이 풍부한 만큼이나, 생태환경 보호가 강조되는 해양이기도 하다. 아세안 회원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모두에 있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성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직결된다.

셋째,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이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베트남명 호앙사)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베트남명 쯔엉사)는 국가를 수호하는 '동부 방어선'으로서 국방에 매우 중요하다. 해양법에서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 등을 상대로 승리한 해전을 언급하며, 동부 방어선의 의미를 역설한다. S자

형으로 된 베트남의 지형은 해안선이 길고 폭이 좁아 방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연안과 근해의 군도를 통합운용하여 해군의 기지·방공호·배치장소로 활용하고, 다른 군종과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바다와 섬은 국방력 확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감시정찰용) 정보 기지를 설치하고, 선박의 휴게소와 급유소를 건설하여 동해 해상항로 운항"을 지원한다고 밝힌다. 2021년부터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해 (전투)비행장과 항만 등을 건설하는 데에 대한 입장설명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베트남의 방어선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는, 동시에 남중국해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점이다. 남중국해 중앙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경우, 베트남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섬은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에 둘러싸여 있다.

한편 베트남은 1993년에 '해양국가'로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대륙국가로서의 강한 국가정체성을 갖고 있다(Nguyễn, 2024: 7). 메콩강 지역의 지전략적 가치와 관련하여, 베트남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넷째, 메콩강 지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 힘의 균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메콩강 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며, 초크포인트인 말라카 해협의 관문에 위치해 있다. 또한 남북 방향으로는 아시아 대륙과 오세아니아를 연결한다. 그러므로 인-태 지역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동남아시아 전체, 특히 메콩 하위 지역을 '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Nguyễn, 2020; Bùi, 2022).

정리하면, 베트남은 강대국 중심적으로 정의된 세력권이라는 지리 권력을 해체하고, 자국의 정치적 관점에서 지리 공간을 재현(representation)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정학적 사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인-태 지역에서도 중심지(epicenter)에 위치해 있다. 이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베트남이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은 종속변수인 헤징 전략을 국방·안보 영역에서 다루므로, 국방·안보 영역에 집중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중국의 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히는 곳이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두 국가의 세력권이 부딪히는 대표적인 지정학적 공간은 남중국해이다. 베트남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남중국해 돌파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군사적으로 집요하게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할 것이다(Trịnh and Lê, 2022).

이에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충돌을 가정하고,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도 있다. 1954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를 저지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다는 '도미노 이론'을 공식화했다. CIA는 미국이 서태평양 기지(일본, 필리핀)에서 억제력을 갖추고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면 도미노가 불가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반론도 여전했다(CIA, 1964). CIA 출신의 신보수주의 사상가인 번햄(James Burnham)은 이를 "국지적 문제가 아닌, 아시아 및 서태평양, 특히 남중국해를 통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방어선은 하와이로 후퇴해야 할 것", "공산주의자들이 태평양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이익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여론을 주도했다(Sempa,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하는 대중국 균형안도 나온다. 미국이 심해항(캄란, 나트랑)과 긴 해안선을 활용하면, 보다 넓은 해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베트남 공안부 과학전략사국의 설명에 따르면, 캄란항은 잠수함과 항공모함 기지로 활용할 수 있어 인접한 파라셀 군도와 말라카 해협(초크포인트), 루손 해협(대만과 필리핀 루손 섬 사이, 초크포인트인 바시해협과 연해)을 선점하고 남중국해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VietTimes, 2020/09/15). 또한 애초에 베트남과 중국이 연하고 있는 통킹만을 통해 중국 핵추진잠수함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다.[5] 방어에 유리한 베트남의 지형(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을 활용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물류보급기지, 통신기지, 항공교통관제소 등으로 사

5 남중국해 북부 통킹만에 위치한 중국의 하이난섬은 핵추진잠수함기지가 위치해 있고, 두 개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전략 기지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비롯한 역내 유사사태 시 중국해군의 전략자산이 입출항하는 곳으로, 중국은 하이난섬에 제4함대 창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할 수 있으며, 장거리 고위력 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Lê and Nguyễn, 2023: 65, 68; Trần et al, 2024; 3).

정리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동향을 육상·해상·공중·수중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정찰하여 억제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베트남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시도했고, 베트남은 2025년 현재까지 수락하지 않고 있다(Ordaniel, 2021: 2). 물론 중국이 베트남의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는 베트남을 우회하여,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로 이어진다. 대신 중국은 메콩강 지역을 통한 육상 실크로드에 베트남을 유인한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이 부딪히는 또 다른 지역은 메콩강 지역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정치·경제 권역으로 본다. 중국이 만드는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에서 베트남은 메콩강 지역과 동남아시아(생산 공급망)를 잇고, 중국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출발점이다. 대륙을 잇는 연결성 측면에서, 베트남은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자랑한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추진한 아시안횡단고속도로(Asian Highway)가 자국에 위치해 있어, 이 고속도로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고, 남아시아 나아가 유럽을 연결한다(VietTimes, 2020/09/15). 2017년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가 가시화된 이래, 베트남은 중국(충칭시)에서 자국을 거쳐 동남아로, 다시 자국에서 중국을 거쳐 제3국(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Việt Nam News, 2023/10/17). 2024년 말에는 말레이시아가 운영하는 아세안쾌속철도(ASEAN Express)가 하노이를 출발해 중국 충칭을 거쳐 폴란드로 가는 화물노선을 개통함으로써, 베트남과 유럽 간 철도 연결성도 확보했다. 이러한 잠재력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윈난성 쿤밍(Kūnmíng)에서 시작하는 일대일로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남북 고속철도(하이퐁-하노이-라오까이 노선)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중국은 아세안쾌속철도와 일대일로를 연결하여 충칭시를 대륙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 and State Information Center, 2024).

베트남은 분명 일대일로 참여의 실익을 기대한다. 중국을 통해 더 많은 시장

과 해외투자를 확보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베트남은 2004년 자국이 중국에 제안한 '양랑일권(兩廊一圈)' 구상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양랑일권 간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정혜영, 2020).[6] 그러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베트남은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에 쉽게 협력하지 않고 속도를 조절해 왔다.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위협 요인(일대일로 사업에 얽힌 부패와 부채의 덫, 일대일로로 인한 아세안 분열, 대중국 자율성 약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진출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 악화 등)을 심각하게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안전 기준과 재무 투명성을 엄격하게 따져서, 2025-27년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3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Vietnam Briefing, 2024/12/10; Vietnam Net, 2024/11/13). 이처럼 베트남은 육상 일대일로 참여에서도 "독립과 자율성", "이익의 조화와 위험의 공유"라는 헤징 노선을 견지한바, 베트남의 대항지정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Hoàng, Huệ Anh,* 2024; Pham, 2021; Nguyễn, 2022). 만약 근미래에 베트남이 한국, 일본 등과 경제협력을 심화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회랑을 개척하게 된다면, 베트남은 대항지정학을 실현하는 역량을 갖는 것이다(정혜영, 2020: 113; Vietnam Net, 2024/11/13). 베트남은 중국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북쪽 철도회랑(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노선)에서는 중국과 제한적으로 협력하겠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남북철도 사업은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스스로 지정학적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Nguyễn, 2024; Phạm, 2025). 한편 베트남은 미국의 메콩강 지역 협력사업(Mekong-US Partnership)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베트남을 자국의 영향력권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미국은 중국의 메콩강 댐 운용에 따른, 베트남의 수자원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인-태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중추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1월 제13차 베트남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당시 서기장은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6 양랑일권은 2개의 철도회랑(서북쪽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노선, 동남쪽 랑선-하노이-하이퐁 노선)과 한 개의 경제지대(통킹만 경제지대)를 말한다. 중국 남서부지역과 인프라(고속철도, 인프라)와 공급망을 연계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북부지역 장기발전구상에서 출발하였다.

기회와 잠재력, 지위, 그리고 국제적 위신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고 선언하였다(Government News, 2024/7/27). 또한 러시아와 서방 언론은 베트남을 린치핀(linchpin) 국가로 묘사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스스로 린치핀 국가로 부르기 시작했다(Vietnam Law and Legal Forum, 2025/05/26; Vershinina and Bachilo, 2021; The Interpreter, 2024/01/15).

III.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베트남의 헤징 전략

1. 헤징 개념의 재정의

베트남의 헤징 전략을 다루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헤징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험관리 대외전략으로서 헤징은 경쟁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좀 더 위협적인 강대국을 대상으로 외교·경제·군사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헤징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관여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신범식 외, 2022: 27).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개념이 확장적으로 쓰이면서 분석적 엄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경제·외교 부문에서의 관여와 내적 균형도 헤징의 속성으로 다루면서, 종속변수(헤징)의 변이를 판별하기 어렵다. 또한, 헤징을 정의하는 기준과 관찰부문, 측정지표가 연구자마다 달라 국가들의 헤징 행태에 대한 평가도 판이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의 연구는 헤징 전략을 안보 분야에 한정해 정의하고 있다. 헤징 전략은 본질적으로, 강대국을 통해 안보 지원을 얻는 대가로 자율성을 어느 정도 잃게 되는 '자율성-안보 교환(trade-off)' 딜레마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Morrow, 1991). 그래서 림과 쿠퍼(Lim and Cooper)는 헤징이란 "강대국과의 제휴 정도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신호"라고 정의한다(Lim and Cooper, 2015: 698). 이들의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발전한 하케(Haacke)는 헤징이란 "강대국과의 미래 제휴 결정에 애매모호한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어떠한 국가가 위기 또는 전쟁 발발 전까지 자국의 제휴 결정을 분명하게 발신하지 않는 신호를 헤징이라고 보는 것이다(Haacke, 2019: 375). 핵심이익이 침해된 이후에는 헤징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국가생존이 핵심이익이므로 자율

성과 안보를 교환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휴란, 상대적 약소국이 어떠한 강대국과 공통의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제휴 강대국이 분쟁에 연루될 경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그러한 신호는 헤징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림과 쿠퍼는 안보 분야에서 제휴의 강도를 약함, 중간, 강함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약한 제휴(강대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 무기 획득), 중간 제휴(전투연습, 군사력 순환배치, 군사시설 제한적 접근 합의), 강한 제휴(반영구적 군사기지, 동맹)가 그것이다(Lim and Cooper, 2015: 704). 이러한 제휴는 균형전략의 지표와 비교할 때 경계가 선명해진다. 군사력 발전 부문에서 균형전략의 예는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기술협력 및 무기 공동개발, 무기 판매 등이다. 군사력 운용 부문에서 균형전략의 지표는 조약에 근거한 새로운 동맹 형성, 새로운 임무 책임, 새로운 기지 건설, 군사력 순환배치, 비상기획 공동수립, 위협 시나리오에 기반한 공동연습 및 훈련 확대, 공동 독트린 개발, 정보공유 확대 등이다(Liff, 2016: 436). 정리하면, 중간 수준의 제휴는 헤징보다 균형에 무게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의 인식이 위험이 아닌 위협이고, 군사력 건설 목적이 위험 대비가 아닌 억제와 격퇴이기 때문이다(Haacke, 2019: 395).

2.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한 베트남의 헤징 전략 구사

그렇다면, 베트남은 상론한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방·안보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헤징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가. 마침 흥미롭게도 트럼프 2기 100일을 맞은 2025년 4월 20일, 『공산잡지』에서 '새로운 맥락에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전략과 지정학적 가치'라는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었다(Đặng, 2025). 본 논문과 2025년 1월~5월 베트남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주요 결의를 토대로, 단계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 방법은 베트남이 스스로 인식하는 지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종합국력을 신장하고,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베트남공산당은 지정학적 가치의 조작이 가능한 외교정

책, 종합국력, 지전략적 위치 순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지전략적 위치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 종합국력과 관련하여, 자국의 국력이 커질수록 상대국이 자국을 "이용"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 베트남공산당은 제13차 전국대표대회(2021년)에서 종합국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국력 신장 방안으로 해양 연결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에서 주요 연결고리로 자리 잡는다는 방침이다(Đặng, 2025).

베트남은 4불 정책, 국제관계 다변화 등을 통한 균형적인 외교를 실행할 때, 가급적 많은 파트너국에게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베트남은 외교정책이란, 국가안보와 국가발전 측면에서 정의된 지정학적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지정학과 헤징의 관계에 있어서, 헤징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과임을 환기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베트남공산당은 단일결의에서 '사회경제발전 및 국방과 안보보장'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경제·사회·문화발전과 외교·안보·국방 간의 시너지"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24/NQ-TW, 2022; 36/NQ-TW, 2018). 2030~45년 기간 동안 해양경제 개발에 집중한다는 국가전략을 다룬 결의 36/NQ-TW는 국방과 해양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공산당은 "국가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한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Đặng, 2025).

2단계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의 힘과 자국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를 '국제통합'이라고 한다. 시대의 힘은 국제정세, 시대를 특징짓는 추세를 가리킨다. 현대 베트남은 이 호치민 사상을 바탕으로, 지난 80년간 국제통합을 통해 국가를 건설(nation-building)해 왔다. 베트남에 있어 독립과 자율성은 국제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국제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 국방전략(preventive defense strategy)'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멀리서 조기에 내외부 위협을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국제통합을 통해 자강 능력('독립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실천적인 목표로 둔다(Ngô, 2020; Nguyễn et al., 2022).

이 지침은 헤징 전략의 본질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베트남의 일관된 헤징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2기를 맞아 2025년 1월 베트남공산당은 '새로운 맥락에서의 국제통합'이라는 결의(59-NQ/TW)를 승인했다. '새로운 맥락'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오늘날 시대의 힘은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의 혁신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시대의 힘으로 인해 세계는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또 럼(Tô Lâm) 공산당 서기장은 2025년 4월 기고문을 통해 정세 인식을 밝혔는데, 베트남은 2030년까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다극체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극화 경향 속에서 미국과 서방 대 중국과 러시아 진영의 분열과 파편화 추세는 더해지리라고 예상한다. 베트남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베트남은 이 새로운 맥락을 활용하여, 기존의 경제 중심의 국제통합에서 나아가, '국방·정치·안보 통합'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VietNamNet, 2025/04/28; Tô, 2025). 이에 따라, 베트남은 국방·안보 통합을 위한 자강 노력으로 브라모스 극초음속 미사일과 해안경계 무기체계 도입, 남중국해 인공섬 전초기지화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국가, 특히 이웃 국가를 비롯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CSP)들과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때도 자율성 확보를 위해 협력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Đặng, 2025).

1, 2단계의 지침은 헤징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인 복잡한 관여(complex engagement), 전방위에서 다수국 얽매이기(omni-enmeshment), 포용적인 다변화(inclusive diversification)와 상통한다(Goh, 2008: 117-119; Kuik. 2025). 기존 논의가 관찰 가능한 헤징 행태의 한 속성으로서 복잡한 관여를 포착했다면, 이러한 증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헤징을 구현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의식적인 노력을 밝힌다.

3단계는 외부의 외교적·물적 지원과 자강 노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어느 정도까지 안보-자율성 교환 딜레마를 수용할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다. 헤징을 재정의할 때 논한 제휴의 강도를 적용하여 베트남의 선택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 베트남은 여러 행동방침과 단서를 둔다. "주요 국가 간의

권력 경쟁 '게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대국과 상대할 때는 협력과 투쟁의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각 대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베트남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능한 역량과 한계를 인식한다", "4불 국방정책을 견지해야 하며,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주요 국가들의 영향력의 균형과 이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국가안보를 위한 제휴

지금까지 헤징이란, 국방·안보 분야에서 강대국과의 제휴 정도에 대해 모호한 신호를 보이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논의했다. 그렇다면 분석의 초점은 베트남의 경우,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인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강대국과 제휴하여, 어떠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위험을 어떻게 회피하려고 하는가이다. 기실 베트남은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유보하기보다, 지리적 조건과 강대국의 세력권을 계산하면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강대국을 선택해 왔다(Khang, 2024). 결론부터 말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미국·일본과 현재의 약한 제휴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제휴 직전의 '임계선' 상태로 안보·국방 협력을 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내 베트남의 전초기지를 봉쇄하는 것이다(Ngo, 2022). 이러한 우려를 자극하는 사례가 2024년 말 발생하였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유권 범위를 명시한 법을 제정하고, 미국·일본·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2024년 11월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대상인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Reef, 중국명 황옌다오)에 영해기선을 선포하였다.

물론 헤징 국가인 베트남은 『2019년 국방백서』에서도, 최근의 공식문서에서도 중국을 위협이라고 명시하지 않는다(Kuik, 2025: 13). 2025년 5월 말에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베트남은 4불 정책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러나 4불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임계선 아래에서, 공통의 안보이익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제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공식화하면서 안보정세가 불안정해지자, 베

트남은 『2019 국방백서』를 통해 이른바 '상황변수'를 추가하였다. 베트남은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국방·군사관계 발전을 고려할 것(*will* consider)"이라고 4불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두는 동시에, 실천의 의지를 밝혔다(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Vietnam, 2019: 24).

제휴의 조건인 공통의 안보이익과 관련, 베트남은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자유'와 '개방(openness)'의 내포를 수용하고, 양자 외교관계 문서와 대외정책문서에 반영하고 있다. 물론 베트남이 조망하고 추구하는 세계질서(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다극질서)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진화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강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항해 및 상공비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상업, 주권 존중,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밝혔다(U.S. Embassy & Consulate in Vietnam, 2024; Government News, 2025/04/28).

2025년 미국, 일본과의 협력 동향은 기존보다 심화된 것이다(조원득·이상숙 2020; Trinh and Huyen, 2024; 정혜영, 2024). 먼저, 약한 제휴의 지표로서 무기 획득이다. 미국발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측과 4세대 전투기인 F-16 전투기 24대 도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미국은 C-130 수송기 판매를 동시 협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베트남은 미 국무부 해외군사자금(FMF)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산 무기를 획득하였는데, F-16 계약이 체결될 경우 최대 규모이다(Radio Free Asia, 2025/04/21). 아울러, 베트남은 해외군사자금을 통해 2024년 11월 미국으로부터 T-6C 훈련기 3대를 인수하였다. 2025년까지 총 12대를 인수할 예정이다(U.S. INDOPACOM, 2024/11/20; U.S. Embassy & Consulate in Vietnam, 2024/11/20).[7]

7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와 관련,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 대사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2월 하노이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내퍼 대사는 베트남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생산'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우리의 목표는 베트남이 해상·공중·지상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산 파트너로서 베트남의 구매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베트남이 미국의 공식적인 안보지원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베트남 국방협력 구상은 이례적인 수준이다(Reuters, 2024/12/19). 미국의 전문가들은 베트남과의 안보·방산 협력은 10여 년 전에는 생각할

그런 한편, 베트남은 2025년 4월에 열린 베트남-일본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을 통한 군사 물자 이전 협력에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2019년 국방백서』에서 새롭게 설정한 상황변수에 근거한 것이다.

약한 제휴의 또 다른 지표인 제휴국의 안보정책 지지와 관련하여, 베트남이 최근 불거진 '통킹만 경계획정 문제'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외교적으로 제휴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8] 2024년 3월 중국은 통킹만(베트남 명칭 박보만)에 새로운 직선 영해기선을 선포하였다. 2000년 베트남과 합의한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치로, 중국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상당 부분을 중국의 영해와 내수로 전환해 잠재적인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에 베트남 외교부는 2025년 2월 새로운 영해기선을 발표하고, 기선 좌표와 통킹만 항해지도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베트남의 발표에 중국은 (경계획정협정 기준) 자국의 통킹만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회색지대 전술로 대응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다자대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외교 항의와 규범적 비판 등으로 일관하는 '계산된' 연성균형(soft balancing)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킹만을 둘러싼 정세변화에 따라 베트남이 일본과 제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5년 1월 베트남 정부는 통킹만 박롱비(Bạch Long Vĩ) 섬을 '박보만 지역의 경제-방위 중심지로 건설'한다는 결의(07/NQ-CP)를 발표하였

수 없었던 일이라며,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서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 사안'을 넘어서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안보 협력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베트남은 스플래틀리 군도에서 50여개의 전초기지를 갖고 있다"는 지전략적 평가를 빠뜨리지 않는다(Poling et al, 2024/8/19).

8 중국의 통킹만 영해기선 선포에 대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법무관실은 규칙기반의 해양법 질서를 와해하려는 '법률전'이라고 평가한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자국 본토와 하이난섬(해군 기지)을 분리하는 '공해'인 하이난 해협(충저우 해협)을 통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또는 대만 해협에 공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직선 영해기선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모색할 수 있는 비군사적 국제협력 안을 제시하였다. 외교연대,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규정에 따른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 적용, 전략적 메시지 공동조율, 항행의 자유 강조, 법률외교(법률전) 등이다(U.S. INDOPACOM, 2024/04/24).

다.[9] 이 결의에 따르면, 하이퐁 시는 자유무역지구 창설에 따른 국제투자 협력을 배가할 것이며, 그리하여 베트남과 국제사회와의 인적·물적·제도적 연결성(connectivity)이 심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하이퐁시 민·관과 함께 국가발전과 국방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People's Army NewsPaper. 2025/04/23). 그러므로 당의 정치·국방·안보 통합 기조에 따른 국방을 위한 국제통합 노력도 향후 관찰사항이다. 해양법 집행과 관련, 국방부 직할인 베트남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0년대 초반부터 통킹만에서 친선 목적의 합동순찰을 해왔는데, 2025년 6월 베트남 해안경비대는 일본 측과 해양법 집행 협력 활동(현장점검 기술 및 범죄 진압 기법 향상 등)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5년 9월 베트남 제1해안경비대(하이퐁 시)에서 훈련을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12월 제3 해안경비대(호치민 시) 사령부에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Vietnam Plus, 2025/6/6; Saigon News, 2025/9/8).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보다 강해질 경우, 미국·일본과의 중간 수준의 제휴 협력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10] 태국만에서의 중국 군사동향이 방아쇠이다. 베트남-캄보디아 전쟁(1978-79년), 베트남-중국 전쟁(1979년)을 치른 베트남으로서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국방협력 동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5월 중국과 캄보디아는 태국만에 연한 캄보디아 레암(Ream) 기지에서 미래해양작전 환경을 반영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레암 기지 건설 확장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여, 중국의 배타적인 항구 이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 차였다. 실사격을 비롯한 이번 작전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레암 기지의 합동지원 및 훈련센터(Joint Support and Training Center)를 활용하여,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해상보급력을 시사했다.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전 전훈을 반영하여 로봇 전투견을 비롯한 무인전투체계, 군집드론, 1인칭시점(First-Person View) 드론 등을 시연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전 대비에 취약한 베트남의 불안을 자극했

9 면적이 2.5km^{2}의 작은 박롱비 섬은 베트남 본토에서 110km, 중국 하이난 섬에서 130km 떨어져 있다.

10 또 다른 헤징 국가인 인도의 경우, 국경에서 중국군과 충돌(2017년, 2020년)하는 무력대치를 치르면서, 2018년에는 수년간 결정을 미뤘던 '통신 상호 운용성 및 보안협정(COMCASA)'을 체결하였다. 2020년에는 민감한 군사지리정보를 공유하는 '기본 교류 및 협력 협정(BECA)'을 체결하였다.

다(Global Times, 2025/05/18; Lê, 2025/05/13; Lê, 2025/01/08).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레암 기지에서는 베트남 제5군구사령부의 동태뿐 아니라 베트남 전역의 항공운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면, 베트남이 동쪽으로는 통킹만,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서쪽으로는 태국만 전 해역에서 중국에 의해 포위(encirclement)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다(Tita·Khang, 2025).

중간 수준의 제휴 협력 지표인 군사시설 제한적 접근 합의(agreement)와 관련, 베트남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은 낮다. 베트남은 지금처럼 민군복합항인 캄란항을 외국군에 개방하여, 기회훈련·친선교류(문화활동, 체육) 등을 통해 국방·안보를 위한 국제통합을 진전시킬 것이다. 헤징국가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항구 접근권을 개방하고 있다. 캄란만의 전략적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베트남은 방문하는 주변국 해군에 지원 서비스(함정 연료공급, 물 공급, 장비 수리, 병원 치료 등)를 제공하고 있다(People's Army NewsPaper, 2011/02/05; Viet Nam News, 2016/03/11; Oak, 2018). 미국, 일본 등 캄란항 사용국 입장으로서는 항만 작전환경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투연습과 관련, 베트남은 미국이 개최하는 림팩(RIMPAC)과 발리카탄(Balikatan)에 '옵저버'로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두 훈련은 모두 실전 상황을 가정한 고강도 전투연습이다. 균형 지표에 해당하는 전투연습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간 수준의 제휴 협력에 해당하는 정보공유와 관련, 미국이 희망하는 GSOMIA를 체결할 유인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2월 필리핀과 미국이 체결한 GSOMIA 합의와 베트남의 BrahMos 초음속 미사일 도입을 계기로, 베트남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위성기반의 정보공유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에 접근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GSOMIA의 운영체제상, 미국의 승인에 따라 베트남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리핀(BrahMos 배치국)·일본(ODA를 통해 베트남의 위성 발사 및 운영 지원), 인도(BrahMos 판매국·베트남에서 위성데이터 추적 및 운영센터 운영)는 모두 미국과 GSOMIA 체결국

11 베트남국영통신사(Vietnam News)는 필리핀과 미국의 GSOMIA 체결 사실(fact)을 간략하게 보도하면서, GSOMIA는 군사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기술하였다.

이며, 미국 전략사령부/NASA와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의 안보적 필요(needs)를 공략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을 고려한 상론한 내용은 현재 베트남과 중국 간의 국방협력의 수준과 대조된다. 2025년 4월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중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육상·해상 국경 공동순찰, 비전통안보(사이버보안, 인신매매 방지, 경제범죄, 테러 방지) 협력, 공안부 장관 간 핫라인 개설 등에 합의했다(VietnamPlus, 2025/04/15; Tran, 2025).

4. 위험 상쇄(offset)

그러나 3단계 행동방침에서 언급한 대로 제휴 수준은 "베트남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능한 행동의 역량과 한계를 인식"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도발을 삼가는 이유는 대중 군사력(특히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남중국해에서 무력분쟁 발생 시 육상국경을 통한 중국의 양면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의존할 수도 없으며, 아세아의 분열로 아세안을 통한 남중국해 문제해결도 난망하기 때문이다. 현대 베트남의 암흑기를 낳은 베트남-캄보디아 전쟁(1978년)과 중국 선박의 EEZ 원유 시추 사건(2014년)은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협력과 투쟁의 신념을 재확인한 계기였다(채수홍 외, 2019: 193-203, 254-258; Thayer, 2016: 211-213).[12]

현재 헤징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더해, 근미래 헤징을 강제하는 요인도 있다. 베트남은 2045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고소득 선진국가 진입을 목표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헤징은 외교정책의 사명에 따라 국가안보와 개발의 동시발전을 꾀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동기가 강하다. 더욱이

12 2014년 중국 선박이 EEZ에서 원유 시추를 시도하자 베트남 정부는 1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하며 대치하였다. 베트남 국민은 오토바이 부대를 동원해 베트남 주재 중국기업을 습격하였고, 희생자가 발생하자 중국은 자국민 구출작전을 실시하며 퇴각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미국의 안보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오바마 정부는 베트남의 인권문제를 들며 개입을 거부하였다. 베트남 지도부는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공산당 당 대 당 대화와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면서 사건의 원만한 수습에 합의하였다.

베트남은 국제질서와 정세의 변화가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는데, 베트남은 2030년경 다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기 헤징이라는 개념은 미국에 의한 연루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국의 불확실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위험 관리도 포함해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일리가 있다(Marston, 2024: 37, 42).

한편 자율성 약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은 정치·경제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국방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그동안 헤징 개념은 '상호 모순되고 반대되는 전략의 조합'으로 이해되었다(Kuik, 2015: 3). 하지만 안보 영역에 한정해 헤징을 애매모호한 제휴 신호로 정의하고, 상론한 바와 같이 제휴 동향을 살펴보면, 헤징 국가의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의 설명이 달라진다. 다음의 내용은 제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능동적인 행위이다(Haacke, 2019: 394). 상론한 행동방침과 같이, 2단계에서 제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서 기여하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점, 3단계에서 제시한 주요 국가 간 영향력의 균형과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은 중국 공산당과 당 대 당 협력과 전략대화를 발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가안보가 불안하면 미국과, 정권안보가 불안하면 중국과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2기 베트남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을 다지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베트남공산당에서는 국가 권력서열 2위, 3위, 5위가 부패와의 전쟁 과정에서 퇴진하였고,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서거하였다. 당장 2026년 초 베트남은 향후 5년을 계획하는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다. 또 럼(Tô Lâm) 공산당 서기장의 임기는 서거한 서기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2026년 1월까지다. 2025년 4월 하노이에서 개최한 베트남-중국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은 중국의 세계질서 구축담론인 '인류운명공동체'를 에둘러 '베트남-중국 운명공동체', '베트남-중국 미래 공동체'라고 사회주의 연대를 표현했다.

둘째, 통킹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베트남은 중국과 일대일로 연계성 강화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일방적인 통킹만 해양경계획정 파기에 대응하여, 외교·법률전과 더불어 공동의 경제이익 창출을 꾀하는 연성균형

을 병행할 것이다. 2025년 2월 베트남 국회가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건설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2025년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북부경계지역에서 양국의 인프라(도로, 철도, 고속도로, 스마트세관 등) 연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문에서는 양랑일권과 일대일로의 연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기술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상태도 이례적으로 다루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이 중국과의 인프라 연계성 협력에 속도를 조절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은 중국의 국가사업인 일대일로 참여를 지렛대 삼아 제휴의 조건인, 공통의 안보이익(해상경계지역 안정적 관리)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한 위험관리이다.

셋째, 트럼프 2기 들어 대미 흑자국으로 보복관세 위기를 맞은 베트남은 경제분야에서 대항지정학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월 27일 제46차 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으로 'ASEAN-걸프협력위원회(GCC)-중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베트남은 새로운 지역 간의 전략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FTA와 경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특히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과학·기술·투자·개발의 '비정치화'와 지역 간의 공급망 연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Việt Nam News, 2025/05/27).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을 경제통합 다각화의 계기로 삼아 중동과 유럽으로 제품·시장·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러시아와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신흥안보 분야(AI, 양자암호, 생물안보, 우주 등)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 2025년 러시아와의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은 '포괄적전략적동반자(CSP) 관계의 주요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은 AI 위험 대응 협력, 네트워크 정보보안, 우주군비통제 조약 협상 준비, 생물안보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베트남의 군사전략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밝혔다(Government News, 2025/05/12). 미국과의 2024년 정상회담 결과와 국방부 간 대화인 국방안보 대화 의제와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는 베트남의 헤징 전략을 살펴보았다. 지정학적 중간국인 베트남은 고전 지정학의 명제인 지리결정론을 거부하고, 비판 지정학의 문제의식을 실천한다. 강대국과의 전쟁 속에서 협력과 투쟁의 세계관을 형성한 현대 베트남은 국제정치를 자국의 입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화한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담론으로 만들어 베트남공산당의 결의, 정부 독트린 및 연설 등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기 자국의 높아진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헤징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방식이란, 미국과 중국의 셈법을 고려하여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지리적 위치, 종합국력, 외교정책)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외부 지원을 최대 확보하여 국력 발전과 국제협력의 시너지를 꾀하는 것이다. 이때 베트남은 자율성 확보를 위해 비단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러시아, 일본, EU 국가 등으로 협력관계를 다변화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트남은 외부의 외교적·물적 지원과 자강 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안보를 위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인가 결단한다. 베트남은 강대국 간의 권력경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유연성 발휘, 베트남의 역량과 한계 인식, 4불 국방정책 견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영향력의 균형과 이익의 균형 유지 등의 헤징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헤징 전략 구현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안보 분야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헤징 전략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강대국의 안보 지원을 얻는 대가로 자율성을 어느 정도 잃게 되는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를 회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헤징을 군사위기 또는 전쟁 발발 전까지, 어떠한 강대국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제휴의 정도와 결정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재정의하였다. 이렇게 외교,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안보 분야에 집중해 헤징 개념을 재정의하면, 종속변수(헤징)의 변이와 변화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 결과, 트럼프 2기를 맞아 미국과 중국의 맞대응으로 더욱 불안정해진 안보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헤징이 미국과의 제휴(대중국 균형)로 미세 조정될 가능성을 식별하였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현재의 약한 제휴(강대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 무기 획득)에서 중간 수준의 제휴(전투연습, 군사력 순환배치, 군사시설 제한적 접근 합의, 군사 정보공유) 직전의 임계선 상태로 안보·국방 협력을 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련한 헤징 국가인 베트남은 미국과의 제휴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이때도 베트남은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국제질서와 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는데, 베트남은 2030년경 다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미국에 대한 통상교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중국 공산당과 당 대 당 협력을 발전시키고, 중국과의 북부 해상국경지역인 통킹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과 일대일로 연계성 강화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은 아세안-중동-중국 간 FTA 추진을 제안하는 등, 중동과 유럽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을 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국가적인 대비가 긴요한 신흥안보 분야(AI, 양자암호, 생물안보, 우주 등)에서는 전통 우방인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대한 학습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정리하면, 베트남은 과거(강대국과의 투쟁에서 지리 지식을 활용하여 승리한 역사)와 현재(역사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셈법을 예측하고, 자국의 제휴 신호를 전략적 시점에 발신), 미래(자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세력구도와 정세를 예측하여 유리한 행동의 한계를 인식)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항지정학적 헤징을 구현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고유의 헤징 전략을 통해, 미중 사이의 중추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베트남의 이러한 헤징 구현 방법은 또 다른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갖는다. 한국을 "미중 사이에 낀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규정하며, 전략적 상상력과 외교적 선택의 폭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최원기, 2024/07/25).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제2의 애치슨 라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중국에 있어 한국은 어떠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 관계를 공식 선언한 2018년 이래,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

스책임공동체'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모두 중간국의 대항지정학적 성격을 띤다. 하지만 정책설명자료와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대항지정학을 유효하게 만드는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입체적으로 통찰하는 상황인식, △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셈법에서 우리의 역량과 가치를 확인하는 역량평가, △ 미국과 중국의 대전략을 역이용하여 협력의 유인을 제공하는 비판 지정학적 발상, △ 그리하여 우리의 협상력과 목표 달성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 △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흩어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현실 지정학 담론과 민간의 공식지정학 담론을 활성화하고,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제통합(헤징 구현의 2단계)의 전제조건으로 독립과 자율성을 든 점을 특기하고자 한다. 통념적으로, 상대적 약소국은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리에 특화된 헤징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비판 지정학적 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헤징 전략의 실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자국 우선주의와 반세계화(미중 디커플링)가 뉴노멀이 되면서, 국가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선의의 패권국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역할 분담과 비용 분담 요구로 대미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갈등을 낳고 있다. 한국을 헤징 국가로 분류하는 정부 인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Park, 2020: 64),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동맹국 한국은 태생적으로 헤징 국가가 아니다. 그렇다면 헤징의 환상을 좇기보다, 헤징 전략의 동기인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를 완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지름길은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의 정의상, 외부의 안보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즉 자강(自強)이다.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게임의 규칙은 자조(自助, self-help)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헤징 국가 한국은 자강과 자율성 확보를 꾀하는 베트남의 헤징 구현론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투고일: 2025년 10월 10일 | 심사일: 2025년 11월 3일 |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일

참고문헌

문헌자료

김태환·이재현·인남식. 2019.『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니콜라스 스파이크먼. 김연지 외 옮김. 2019.『평화의 지정학』. 일산: 섬앤섬.

신범식·윤진표·김용균·신재혁·최경희·김형종·김찬완·최윤정·유달승·장지향. 2022.『아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과천: 진인진.

신욱희. 2010.『순응과 저항을 넘어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혜영. 2019.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헤징(hedging) -국경 경제협력과 남중국해 갈등을 중심으로."『한중사회과학연구』, 17(1): 229-259.

_____. 2020. "중국과 베트남의 육상협력과 해상갈등의 지정학: 양국 육상연계성 협력의 전략공통분모 탐색."『아시아리뷰』 10(1): 81-122.

_____. 2024. "강대국 세력균형에 대응하는 미-중 갈등 경계국가 전략 연구: 베트남·필리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전략적 자율성 비교."『동서연구』 36(4): 69-112.

조원득·이상숙. 2020. "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동북아연구』 35(2): 5-35.

지상현 and Colin Flint.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공간과 사회』 31: 160-199.

채수홍·김병로·김성철·백지운·서보혁·이찬수·정동준·조동준·천경호·최규빈. 2019.『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Bùi, Thanh Tuấn. 2022. "Giá trị địa - chiến lược của Tiểu vùng sông Mekong [메콩 하위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Đặng, Đình Quý. 2025. "Địa - chiến lược và giá trị địa - chiến lược của Việt Nam trong bối cảnh mới [새로운 맥락에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전략과 지정학적 가치]."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Hoàng, Huệ Anh. 2024. "Mười năm Sáng kiến "Vành đai, Con đường: Thực trạng và triển vọng [일대일로 10년, 현재 상황과 전망]."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Hoàng, Thị Hà. 2024. *Understanding Vietnam's Foreign Policy Choices amid Sino-U. S. Rivalry.*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Lê, Dinh Tinh. 2020. "Tiếp cận khái niệm "địa - chiến lược" trong bối cảnh mới: Cơ hội và thách thức đối với Việt Nam đến năm 2030 [새로운 맥락에서 "지전략" 개념에

접근하기: 2030년까지 베트남의 기회와 과제]."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Lê, Hoàng Kiệt and Nguyễn, Văn Tuyên. 2023. "Vị trí địa chính trị của Việt Nam đối với Hoa Kỳ trong chiến lược ngăn chặn tham vọng bá quyền của Trung Quốc [중국의 패권적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서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21(8): 63-69.

Lê Huy Vinh, Deput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2025. "The Entire Military Makes a Breakthrough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Tạp chí Quốc phòng toàn dân* [국방저널].

Lê, Văn Hưởng. 2025. "Phát triển lý luận về xây dựng tiềm lực quốc phòng trong kỷ nguyên mới [신시대 국방력 구축 이론 개발]." *Tạp chí Quốc phòng toàn dân* [국방저널].

Nguyễn, Hoa. 2020. "Vị thế Việt Nam trong cục diện mới của khu vực [새로운 지역상황에서의 베트남의 입장]."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Nguyễn, Long Duc Bao et al. 2022.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Opportunities and Risks from Vietnamese Perspectiv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9(4): 229-238.

Nguyễn, Tân Cương, Deput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2022. "Strengthening Vietnam defense potential and posture under the guidance of the 13th Party Congress in the new period."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Pham, Thanh Hang. 2021. "*Sáng kiến "Vành đai và con đường" của Trung Quốc và cơ hội, thách thức đối với Việt Nam*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베트남의 기회와 과제]." *Political Theory.*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Trần, B. H., Nguyễn Anh, C., and Đinh Trần, Y. N. 2024. "Challenges for Vietnam in protecting South China Sea Sovereignty and Interests." *Cogent Social Sciences*, 10(1): 1-23.

Tô, Lâm,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2025. "Bài viết "Vươn mình trong hội nhập quốc tế" của Tổng Bí thư Tô Lâm [국제 통합을 위한 노력]." *Tạp chí Quốc phòng toàn dân* [국방저널].

Trịnh, Thị Hoa and Lê, Quang Mạnh. 2022. "Cạnh tranh Mỹ - Trung Quốc tại khu vực Ấn Độ Dương - Thái Bình Dương trên lĩnh vực an ninh - chính trị và một số hàm ý chính sách đối với Việt Nam hiện nay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및 정치 분야에서의 미중 경쟁과 오늘날 베트남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Goh, Eelyn. 2008. "Great Powers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Analyzing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Security.* 23(3): 113-157.

Haacke, Jürgen. 2019. "The Concept of Hedging and its Application to Southeast Asia: A Critique and a Proposal for a Modified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9(3): 375-417.

Kuik, Cheng-Chwee. 2015. "How Do Weaker States Hedge? Unpacking ASEAN states' Alignment Behavior towards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100): 500-514.

_____. 2025. "Hedging as a Policy Without Pronouncement: A Tale of Three Defense White Papers," in NIDS ASEAN Workshop 2025 - "New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of Japan.

Liff, Adam P. 2016. "Whither the Balancers? The Case for a Methodological Reset." *Security Studies*. 25(3): 451–459.

Lim, Darren J. and Cooper, Zack. 2015. "Reassessing Hedging: The Logic of Alignment in East Asia." *Security Studies*. 24(4): 696-727.

Marston, Hunter S. 2024. "Navigating Great Power Competition: A Neoclassical Realist View of Hedg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4(1): 29–63.

Morrow, James D.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904-933.

Ngô, Xuan Lich. 2020. "Inheriting and Bringing into Full Play the Tradition of Building a Strong All-people National Defe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ventive Defense" Strategy." *Tạp chí Cộng sản* [공산잡지].

Ó Tuathail, Gearóid. 1999. "Understanding critical geopolitics: Geopolitics and risk society."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2(2): 107-124.

Ó Tuathail, Gearóid and Agnew, John. 1992. "Geopolitics and discourse." *Political Geography*. 11(2): 190-204.

Thayer, Carlye. 2016. "Vietnam's Strategy of 'Cooperating and Struggling with China over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3(2): 200-220.

Tran, Brandon. 2025. "Sino-Vietnamese Defense Relations." *Military Review* (Army University Press).

Trinh, Viet Dun and Huyen Ho Dieu. 2024. "Vietnam's Response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 the Context of a Rising China."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43(1): 120-147.

Vershinina, V. V. and Bachilo, D.D. 2021. "Vietnam as a Linchpin Between Russia and ASEAN." *The Russian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54: 162-170

정부문서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중앙집행위원회]. 2018. "Nghị quyết số 36-NQ/TW ngày 22/10/2018, Hội nghị lần thứ tám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XII) về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bền vững kinh tế biển Việt Nam đến năm 2030, tầm nhìn đến năm 2045 [2018년 10월 22일자 제36-NQ/TW 결의안, 2030년까지 베트남 해양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2045년 비전 포함)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 (12대 임기) 제8차 대회]."

Bộ Chính trị [정치국]. 2022. "Nghị quyết số 24-NQ/TW ngày 07/10/2022 của Bộ Chính trị về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à bảo đảm quốc phòng, an ninh vùng Đông Nam Bộ đến năm 2030, tầm nhìn đến năm 2045 [2030년까지 동남부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및 국방과 안보 보장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24-NQ/TW호 (2022년 10월 7일자, 2045년 비전 포함]."

Bộ Tư pháp [법무부]. 2021. PHÁP LUẬT BIỂN VIỆT NAM [베트남의 해양법].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베트남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100 câu hỏi - đáp về biển, đảo dành cho tuổi trẻ Việt Nam* [베트남 청소년을 위한 바다와 섬에 관한 100 가지 질문과 답변].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 and State Information Center. 2024. "Asia-Europe trade on fast track as ASEAN Express accelerates from Chongqing."

CIA. 1964. "Would the Loss of South Vietnam and Laos Precipitate a "Domino Effect" in the Far East?.

Ministry of Defence, Socialist Republic of Việt Nam. 2019. *2019 Defence White Paper.*

U.S. Embassy and Consulate in Vietnam. 2024. "United States Expands U.S.-Vietnam

Defense Cooperation with Delivery of T-6C Trainer Aircraft." (November 20).

U.S. Embassy and Consulate in Vietnam. 2025. "One-Year Anniversary of the U.S.-Vietnam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eptember 10, 2024; "Viet Nam, Japan Issue Joint Communiqué." (April 28).

U.S. INDOPACOM. 2024. "Topic: The PRC's Straight Baselines in the Fult of Tonkin."

_____. 2024. "Legal Vigilance Dispatch."

_____. 2024. "COMPACAF Attends Historic T-6C Aircraft Delivery to Vietnam."

신문

"[최원기의 외교포커스] 미중 진영대결과 지정학적 중간국." 파이낸셜뉴스. (2025년 7월 25일).

"Cam Ranh - Đệ nhất quân cảng [깜라인 - 최초의 군사 항구]."*People's Army NewsPaper* (February 5, 2011).

"Lợi thế địa quân sự độc nhất vô nhị của Cam Ranh [캄란항의 독특한 군사적 지리 우위]." *Vietnam Net* (March 11, 2016).

Đỗ, Lê Chi. "Vị thế chiến lược của Đông Nam Á và Việt Nam trong cấu trúc an ninh ại châu Á – Thái Bình Dương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에서 동남아시아와 베트남의 전략적 위치]." *Viet Times* (September 16, 2020).

Nguyễn, Quốc Trường, Deputy Director of the Vietnam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ies under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ệt Nam - China cooperate in Belt and Road Initiative implementation." *Việt Nam News* (October 17, 2023).

"Vietnam's Pivot." *The Interpreter* (January 15, 2024).

"ĐẤT NƯỚC TA CHƯA BAO GIỜ CÓ ĐƯỢC CƠ ĐỒ, TIỀM LỰC, VỊ THẾ VÀ UY TÍN QUỐC TẾ NHƯ NGÀY NAY" [우리나라는 오늘날과 같은 기반, 잠재력, 지위, 국제적 명성을 결코 누린 적이 없습니다]."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정부 전자신문] (July 27, 2024).

"Vietnam's High-speed Rail to Follow Japan's Model, Avoid Metro-style Delays." *Vietnam Net*. (November 13, 2024).

"Philippines, US sign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deal." *Việt Nam News* (November 18, 2024).

"Driving Growth: Business Opportunities in Vietnam's North-South High-Speed Railway Project." Vietnam Briefing (December 10, 2024).

"Vietnam PM Eyes Expansion of Defence Cooperation, U.S. Offers to Play Role." *Reuters* (December 19, 2024).

Government News of Socialist Republic of *Việt* Nam. "Joint Statement on Major Orientations for Viet Nam-Russ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May 12, 2025).

"Vietnam, China Issue Joint Statement." *VietnamPlus* (April 15, 2025).

"Vietnam Committed to Stronger ASEAN – GCC – China ties: PM." *VietnamPlus*. (May 27, 2025).

"PM Chính Proposes Financial Centre Connectivity among ASEAN, Gulf Nations and China." *Việt Nam News* (May 27, 2025).

"Vietnam, China Issue Joint Statement Vietnam." *VietnamPlus* (April 15, 2025).

"Vietnam Agrees to Buy US F-16 Fighters, Defense Website Says." *Radio Free Asia* (April 21, 2025).

"*Xây dựng Bạch Long Vĩ thành trung tâm kinh tế - quốc phòng* [국방부, 박롱비 섬을 경제·방위 중심지로 건설 검토]." *People's Army NewsPaper*. (April 23, 2025).

"[Full Text] General Secretary Tô Lâm: Global Integration Vietnam's Historic Mission." *VietNamNet*. (April 28, 2025).

"Joint Statement on major orientations for Viet Nam-Russ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정부 전자신문] (May 12, 2025).

"China-Cambodia 'Golden Dragon-2025' Joint Drills Signify Deeper Military Co-op: Expert." *Global Times* (May 18, 2025).

"Vietnam proactive in building inclusive, sustainable ASEAN Community." *Vietnam Law & Legal Forum*. (May 26, 2025).

"Vietnam Coast Guard, JICA Office Strengthen Cooperation." *VietnamPlus*. (June 5, 2025).

"Japan, Vietnam Strengthen Maritime Law Enforcement Cooperation." *Saigon News*. (September 8, 2025).

온라인 자료

Khang, Vu. 2024. "Vietnam and the Art of Choosing." *The Diplomat*. (March, 15).

Ngo, Lan D. 2022. "What the debate on Vietnam's Geostrategic Orientation misses."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December, 5).

Nguyễn, The Phuong. 2024. "The Funan Techo Canal and Vietnam's Maritime-Continental Dilemma." *ISEAS Perspective*. ISEAS-Yusof Ishak Insitute. (November, 25).

Nguyễn, Khac Giang, 2024.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s North-South High-Speed Rail Project." *ISEAS Perspectiv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October, 18).

Oak, Niranjan Chandrashekhar. 2018. "Cam Ranh Port: A Lever in Vietnam's Naval Diplomacy."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ctober, 6).

Ordaniel, Jeffrey. 2021.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Charting the Next 25 Years in Bilateral Security Relations." *Issues & Insights,* 21. Pacific Forum. (September, 30).

Park, Jin. 2020. "Kore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ow Does Hedging Work?."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Pham, Quang Hien. 2025. "Vietnam and China's Railway Diplomacy: High-Speed Projects, Not Small Risks." Modern Diplomacy. (June, 21).

Poling, Gregory et al. 2024. "An Indispensable Upgrade: The U.S.-Vietnam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IS. (August, 19).

Sempa, Francis P. 2015. "The Geopolitics of the Vietnam War." *The Diplomat* (February, 10).

Tita, Shanglee and Vu Khang. 2025. "Good Neighbors Make Good Fences: The Strategic Basis for a Thai-Vietnamese Entente." *The Diplomat* (June, 18).

Abstract

Vietnam's Hedging Strategy based on Critical Geopolitics

Su-jin Le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While existing studies of the hedging strategy have focused on hedging behavior, researche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geopolitical considerations underlying the hedging strategy. Furthermore, few studies have opened the 'black box' of the hedging states to observe the guidelines of policymaker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 hedging strategy.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Vietnam, a middle-ground power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of spheres of influence of the U.S. and China, employs a hedging strategy to leverage its geopolitical value in the Trump 2.0 era. To this end, it captures the critical geopolitical thinking evident in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s discourse and clarifies the party's guidelines for implementing a hedging strategy. To ensure analytical rigor, the concept of hedging is redefined to apply specifically to the security area. The paper then proceeds to examine Vietnam's discreet efforts to align itself with countries that share common security interests.

This paper argues that Vietnam is leveraging its geopolitical value, which could impact strategic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Amid an increasingly unstable security situation due to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formation of an intermediate-level alignment with the U.S. to check China is a possible consideration for Vietnam. At the same time, Vietnam is seeking to maximize its geopolitical value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 connectivity to offset its risks. In anticipation of a multi-polar world emerging around 2030, Vietnam is seeking political and economic alignment with China.

Keywords | Hedging Strategy, Critical Geopolitics, Middle-ground Power, Vietnamese Communist Party, Alignment